

미리 알면 도움 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편익 증진 위한 제도 중심 5개 분야 총 24개 사업 대시민 홍보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돼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촘촘한 복지가 지원된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우선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에서 전면 시행, 9개 자치구(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에서 시범 시행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것.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12만 명의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소파대가 도착하기 전 인근주민이 소파기 등을 활용해 재난대응을 한 경우, 손실된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를 첫 실시한다.

재난발생 관할 소방서에 비치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9월부터는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 지하보도, 육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방송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동네' 사업이 관악구 난곡동 일대 3곳에서 시범 추진된다.

10월부터는 공공자전거가 378대에서 2,000대로, 공공자전거 정거장은 44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자전거 전용 앱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http://www.bikeseoul.com)를 구축 중이다. 정거장 설치 위치는 이 두 곳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용은 앱을 통해 요금결제 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정책 개선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시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발표했다.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5개 유형은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24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꿈꾸는 도시 : 한옥 건축법 완화로 건축 쉬워져

꿈꾸는 도시의 하나로 앞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옥에 대한 건축법 적용 규정이 완화돼 한

옥 건축하기가 쉬워진다.

예컨대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9m 이하 부분을 1.5m 이상 띄우야 했다면 한옥에 대한 건축법 완화로 0.5m 이상만 띄우면 된다.

또, 한옥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2월부터는 '모바일 하나로 다 되는 서울관광'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스마트폰, PC, 모바일 3개 버전으로 제작된 운영되던 정보들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따뜻한 도시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

7월부터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주요 서비스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한다. 2018년까지 모든 동 주민센터로 확대·운영될 계획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기준을 말한다. 특히, 주거 급여의 경우, 임차가구

에 대해 실제 임차료(최대19만원/1인기준)를 지급한다.

숨쉬는 도시 :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다양화, 공공자전거 2,000대로 확대

숨쉬는 도시의 하나로 7월부터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기준을 절감률 10%에서 5%로 완화하고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도 3단계로 다양화한다.

절감률 5%이상~10%미만은 1만 마일리지, 10%이상~15%미만은 3만 마일리지, 15% 이상은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대상항목은 기존에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자율선택 2개에서 전기가 필수 항목,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1개 선택으로 변경된다.

7월 3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기존 5분(휘발유, 가스 자동차는 3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린 도시 :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 운영,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등

8월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 운영, 12월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로 행정서비스는 보다 편리해진다.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는 관공서에 오기 불편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상담서비스 제공.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지역을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 오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페이지를 통해 방문지역을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 오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만 설치돼 있으면 지방세, 상하수도요금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ETAX 또는 STAX(서울시 스마트폰 세금납부) 이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 방법 중 카카오페이를 선택하면 되며, 고지서 바코드 촬영 후 결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이 기존 관급공사에서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공사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사랑 등시가 보유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중요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달라지는 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삶 곳곳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티머니 교통카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 적립되는 것은 물론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 시에도 마일리지 추가 적립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대중교통 활성화, 티머니 서비스 확대를 위해 티머니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던 것을 충전 시에도 2% 적립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충전 건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철역 무인충전기, 은행 ATM,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충전금액의 2%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최고 월1,500마일리지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티머니 가맹편의점이나 지하철역사 서비스센터에서 티머니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 티머니리지 서비스 등록 시 입력한 충전비밀번호가 필요하다.

1마일리지는 1원으로 전환돼 충전되며, 마일리지 전환으로 충전된 티머니는 기존 충전금액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교통카드 최대 4% 마일리지로 돌려준다

티머니 선불교통카드도 마일리지 적립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티(T)마일리지 서비스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티마일리지 서비스 등록 방법은 먼저 티머니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카드를 등록한 후 티마일리지 서비스를 등록하면 된다.

이때 추후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별도의 충전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마일리지 적립은 티머니 교통카드 월 3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월 30회 이상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최고 월 1,500마일리지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티머니 충전금액 마일리지 적립은 충전 금액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나, 지하철역 무인충전기나 은행 ATM 또는

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카페, 전통시장 등 전국의 티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기능이 포함된 일부 신용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청구요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카드의 이용실적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금번 서비스 확대에 의해 티머니 선불교통카드를 충전만 해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된다.

서울시 이월복 교통정책과장은 "선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초·중·고 및 대학생 등 학생층 임을 감안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이용자들의 반응에 따라 적립율을 조정하는 등 사소한 불편함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실시 재난현장 활용 민간자원 '손실보상제' 첫 실시, '클래식 범죄예방' 추진 찾아가는 민원서류 발급, 10월 공공자전거 2,000대로 대폭 확대



육아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곧 나를 키우는 것이라는 걸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육아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선물하는지 역시 지난날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다. 소년에서 어른으로, 부모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 육아의 기쁨과 소중함을 나누고 싶었다. 『프롤로그』 중에서

부모는 아이를 낳고, 아이는 부모를 성장시킨다 200만 독자가 열광한 솔이 아빠의 필살 육아 에세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



달바벥가 그렸어

김진형 지음 | 384쪽 | 13,800원



소담출판사